

## 『百牧講演(第一集)』(1921)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윤리관 분석

-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녹스(Robert Knox),  
게일(James S. Gale)의 글을 중심으로

안수강(백석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아펜젤러의 “人生的 目的”에 나타난 윤리관

1.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2.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에 투사된 ‘사랑’
3. 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 III. 녹스의 “참 敬虔함”에 나타난 윤리관

1. ‘하느님 압혜(앞에)’의 적용: 감찰하시는 하나님
2. ‘하느님 압혜’의 적용: 경건한 마음을 갖출 것
3. ‘하느님 압혜’의 적용: 선행을 실천할 것

### IV. 게일의 “聖經”에 나타난 윤리관

1. 인간의 죄성 진단
2.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 추구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An Analysis of the Missionaries' Ethics in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1921): Focused on Sermons Written by Henry G. Appenzeller, Robert Knox, and James S. Gale

Adjunct Prof. Ahn, Su-Kang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iew of the missionaries' Christian ethics in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1921) in the early era of Japanese Imperialism's 'Rule of Culture.' The author concentrates on the central discourses on the missionaries' ethics in this book as follows. Firstly, the author treats with the views of Christian ethics around the themes of efforts for unified integration of this world and the next, vertical and horizontal ethics as love, and moderation and abstinence in Henry G. Appenzeller's "The Purpose of Life." Secondly, the author points out the views of 'coram Deo' around the themes of close inspection of God, pious spirit and attitude, practice of good deeds in Robert Knox's "True Piety." Thirdly, the author centers the views of ethics around the themes of diagnosis of human sin, supernatural morality as imago Dei in James S. Gale's "The Bible."

**Key words:** Henry G. Appenzeller, Robert Knox, James S. Gale,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 Christian Ethics

---

##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처음 발행된 설교집 『百牧講演(第一集)』(1921)<sup>1)</sup>에 소개된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한국명 亞扁薛羅), 녹스(Robert Knox, 한국명 魯羅福), 게일(James S. Gale, 한국명 奇一)의 진귀본 설교문들을 분석할 것이며 이들이 한국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한 기독교윤리관을 고찰하여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百牧講演(第一集)』에는 “투철한 신앙심, 지혜와 지식, 거룩한 싸움, 승리적 신앙, 경건성, 감사와 찬송, 기도, 민족애와 애국심, 자발적 헌신과 이타주의, 성경이해, 복음전파와 구령, 기독교교육의 활성화, 경제관, 윤리관 등”<sup>2)</sup> 다채로운 메시지를 담은 설교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아펜젤러는 이 설교집에 “人生的 目的”을, 녹스는 “참 敬虔 心”을, 게일은 “聖經”을 발표했다. 이 시기는 특별히 1920년대 초 이데올로기로서의 일제 문화정치가 시행된 초기단계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윤리적 관점’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세 편의 설교문을 통해 이들의 윤리적 관점을 상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1920년대 초 일제 문화정치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 선교사들이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윤리적 성찰과 각성을 담고 있다. 본 연구자는 『百牧講演(第一集)』에 게재된 설교문 외에도 이들이 남긴 다른 원자료들을 참고했다. 당대는 교회사적으로 한국기독교의 유년기였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한국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시기였다. 초기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모토로 “음담패설의 악덕 일소, 금주금연, 축첩금기, 노비 해방, 반상 구분 폐지, 데릴사위제와 민며느리제 금지, 조혼 및 수양남매 결연 혁파,

1)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京城: 博文書館, 1921), 1-252.

2) 이 논지들은 본 연구자가 『百牧講演(第一集)』에 나타난 주제들을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다.

노름 및 기방출입 엄금, 마약 퇴치 등<sup>3)</sup>을 숭신하여 추진했던 것은 기독교윤리 분야에 남긴 큰 업적이었다.

삼일독립운동 이후 일제는 종래의 무단정치를 중단하고 문화정치를 수행할 것을 공언했지만 이는 한국인들을 제국주의 식민이념에 동화시키려는 백계묘책(百計妙策)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했다. 일제는 문화정치를 수행하기 위해 1919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총독직에 임명했으며 사이토 마코토는 1927년까지, 그리고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두 차례 재임기간 중에 문화정치를 시행하여 식민사관을 이종함으로써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작업을 단행했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정치는 외형적으로는 무단정치에 비하여 그럴싸하게 유희적인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식민사관을 착근(着根)하기 위해 이념통치로 전환했던 것은 ‘무(武)로 공성(攻城)하고 문(文)으로 수성(守成)한다’는 리더십을 악의적으로 호도한 책략이었다.<sup>4)</sup> 더군다나 한국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암울한 변화의 징후가 있었다. 주목할 점으로서, 기독교윤리학자 이장형이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정립』(2016)에서 진단했듯이 1920년대 초 문화정치가 착수된 배경에서 한국기독교는 현세와 내세를 단절 짓는 이원론적인 삶의 구도 구상과 내세지향적 태도로 경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각성이 필요한 시기였다. 당시 한국기독교는 삼일독립운동을 통해 교회가 한층 사회의 염광(鹽光)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질 수 있었지만 복음의 본질이 구령사역에 있다는 점을 앞세워 사회참여를 등한시했고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이완시키는 과오를 범했다.<sup>5)</sup> 이러한 시대적 콘텍스트에서 한국기독교는 새롭게 현실을 직시할 혜안을 모색해야 했으며 문화정치라는

3) 안수강,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 (2019), 156.

4) 안수강, “이범진(李汎鎭)의 금전윤리관과 현재적 함의-그의 ‘人生의 金錢觀(1921)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2021), 271.

5) 이장형,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정립』 (성남: 북코리아, 2016) 207.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민초들을 교육해야 할 윤리적 지도력을 갖추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아펜젤러, 녹스, 게일 등의 설교문은 현실 참여적 윤리의식과 실천의식을 고취해주었고 인간 내면의 죄성과 지향해야 할 고도의 도덕성을 심도 있게 논증함으로써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을 진작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百牧講演(第一集)』은 삼일독립운동 이후 한국인을 전면 식민이데올로기로 회유하려는 일제의 문화정치에 저항하여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점한다. 첫째, 『百牧講演(第一集)』은 문화정치에 맞서 문서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행되었다. 당시 이러한 전략은 식민정책을 미화한 일제에 항거하여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변증하고, 한국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정체성을 교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략이었다. 둘째, 이 문헌은 한 해 간격으로 연속 출간된 『宗教界諸名士講演集』(1922)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보급됨으로써 당대 설교집의 양 축을 구형할 수 있었고 신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했다. 『宗教界諸名士講演集』에는 삼일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길선주,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이필주, 정춘수 등”<sup>6)</sup>을 포함하여 교계지도자들 20인의 설교문을 게재함으로써 기독교신앙에 단초를 둔 애국심을 고양했다. 『百牧講演(第一集)』은 1921년에 박문서관(博文書館, 경성)에서 발행되었다. 상하 일단(一段) 내려쓰기 체제로 조판되었고 목차, “小引”, “序文”, 서지정보 외에 설교본문 분량만 252면에 달한다. 편집을 담당한 양익환(1889-1970)은 “序文”에서 “本書는 牧師와 教師 諸氏의 有力한 講說을 蒐集한 거시라. 日曜日에 禮拜式에 列席한 講道를 듯지 못하는 사람들을 爲하고 又是 牧師

6) 韓錫源 編, 『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목차 참조. 한경국은 이 문헌 연구에서 강연집의 배경, 용어구사, 설교연구 등을 고찰했다. 한경국,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 (2018), 147-174.

업는 鄉村 教會에서 禮拜를 引導 하는 여러분을 爲 하여 偏執 한 거시며”<sup>7)</sup>라고 기록하여 이 문헌이 전국 각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한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최병헌은 “小引”에서 “主의 도래온 사람이 數千 名에 이르고 四海 同胞의게 傳播 한 數가 數十萬 卷에 達 한지라 恒常 冊子를 著作코자 하나 餘暇가 업슴으로 爲 先 百 사람[百牧의 의미로 1권 당 25편 수록; 원래 100편을 계획했으나 제1권 재판으로 중단됨-연구자 주의 說教 한 것을 蒐輯 하여 一冊을 編成 하니 題曰 百牧講演이라.”<sup>8)</sup>라고 하여 이 강연집을 통해 진도활동을 독려하고 성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 강연집에는 “최병헌, 김영제, 홍병선, 김종우, 이명혁, 김활란, 차형은, 한석원, 조종범, 이범진, 이병주, 이수선나, 윤치호, 김상준, 김형식, 이명직, 홍순탁, 김응태, 신준려, 양익환, 아펜젤러, 흡스, 녹스, 빌링스, 게일 등”<sup>9)</sup> 한국인의 글 20편과 선교사의 글 5편 등 총 25편의 설교문이 수록되었다. 25인의 저자들 중에서 소천한 인물로는 아펜젤러(1858-1902)가 유일하다.

『百牧講演(第一集)』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한경국과 안수강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경국은 “한국 최초의 설교집 백목강연에 대한 연구”(2017)에서 『百牧講演(第一集)』에 기술된 설교용어를 비롯하여 설교의 구성, 주제들과 해당되는 본문들, 설교의 개요 및 형태, 예화들의 해학성, 내용분류, 설교 마무리 등을 분석했다.<sup>10)</sup> 안수강은 “일제 문화정치 초기 『백목강연(百牧講演) 第一集』(1921)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 분석-홍병선, 김형식, 이범진, 조종범의 설교를 중심으로”(2022)에서 양심의 개조와 진정한

7) 梁翊煥, “序文,”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3(“序文”의 면수).

8) 崔炳憲, “小引,”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1-2(“小引”의 면수).

9)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목차 참조.

10) 한경국, “한국 최초의 설교집 백목강연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 (2017), 145-173. 한경국은 이 설교문집이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정치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나타난 문헌이었다고 보았다. 같은 논문 146-147쪽, 149쪽 참조.

사랑 정립, 봉사의 필수요건들, ‘신인아’(神人我)의 다중적 관계성,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봉사관, 금전 선용,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부(富)의 사회 환원, 자족의 효력과 유익성 등을 논증했다.<sup>11)</sup> 안수강은 『百牧講演(第一集)』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을 한국인 저자들로 제한하여 고찰했으며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교사들의 윤리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헌에 수록된 아펜젤러, 홉스(Thomas Hobbs, 한국명 許燁), 녹스, 빌링스(Bliss W. Billings, 한국명 邊永瑞), 게일 등 다섯 선교사들의 글들 중 특히 아펜젤러, 녹스, 게일 등의 설교문에서 윤리적 관점이 두드러진다. 이들의 윤리관은 본 논문 제2장부터 4장까지 『百牧講演(第一集)』에 수록된 차례에 따라 아펜젤러, 녹스, 게일의 순서로 분석할 것이며 제5장 ‘나가는 말’에서는 본고에서 천착한 논지들을 단초로 현재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II. 아펜젤러<sup>12)</sup>의 “人生의 目的”에 나타난 윤리관

아펜젤러에 관한 연구는 선교, 성경번역, 배재학당과 정동교회 설립,

- 
- 11) 안수강, “일제 문화정치 초기 『백목강연(百牧講演) 第一集』(1921)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 분석-홍병선, 김형식, 이범진, 조종범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4 (2022), 203-237.
- 12) 아펜젤러(1858-1902)는 미국북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더불어 내한한 이래 배재학당 설립(1885), 성경번역위원회 조직(1887), 성경번역 사역, 정동교회 설립(1895),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 전신 인쇄소 설립(1889), 월보 『교회』 창간(1889), 월간지널 *The Korean Repository* 간행(1892), 대동서시(大東書市) 설립(1894), 『美以美教會綱例』(1890)와 『廟祝問答』(1895) 등 서적 출판, 『대한크리스도인회보』 사장(1898) 봉직 등 선교업적을 남겼다. cf. 盧宗海, “아펜젤러의 人間과 信仰,” Henry G. Appenzeller, 盧宗海 역, 『自由와 빛을 주소서』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9), 118, 286-287; Henry G. Appenzeller, 조성환 역, 『H. G. 아펜젤러의 報告書』 (대전: 培材大學校出版部, 1997), 64;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258; 김승태, 박혜진, 『내한선교사총람(1884-1983)』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0, 78.

저작 및 출판사역, 교육활동, 문서선교 등을 주제로 추진되었다. 이에 비하여 신학사상은 깊이 있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으며 이중 윤리분야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은 전무하다. 신학사상 분야에는 김흥기, 안신, 박종현, 오지원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웨슬리 신학과와의 비교분석, 사회적 성화, 종교관, 구원관, 신앙, 회심과 은혜 등을 주요 주제들로 다루었다.<sup>13)</sup>

아펜젤러는 『百牧講演(第一集)』에 수록된 “人生的 目的”에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대비하여 논지를 전개했으며 특별은총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윤리관을 피력했다. 그는 다른 설교문 “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s”(질그릇 속의 보물, 1889)에서는 특별은총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기독교신자들을 비기독교신자들과 엄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the sons of God)로, 이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the Father)로 칭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인(印)치신다고 확증했다.<sup>14)</sup> 그는 “人生的 目的”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별은총 영역에서 다양한 책무들을 부과하셨다고 했으며 이 가운데 윤리영역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논지들은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사랑) 실천’, ‘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등이다. 그는 “人生的 目的”이라는 제하에 요한1서 2장 17절(“此 世上도 가고 그 情慾도 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世世에 잇스리로다”)을 본문으로 설정하여 설교문을 작성했다.

13) 김흥기,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신학사상,” 『신학과 세계』 44 (2002), 71-105; 안신,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의 선교사상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33/2 (2012), 137-173; 박종현, “아펜젤러의 신학사상,” 『교회사학』 14/1 (2015), 27-44; 오지원,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그의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歷史神學論叢』 28 (2015), 90-149.

14) Henry G. Appenzeller, “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s,” Committe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 (1)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243.

## 1.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아펜젤러는 지상생애와 내세의 삶을 별개의 두 지평으로 분리하지 않고 한 지평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일원적 세계로 조망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여 살지만 지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교훈했다. 물론 그의 논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원한 내세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의 큰 소망이다. 그는, 인간은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영생을 구해야 할 존재라고 선언했으며<sup>15)</sup> “或者 말하기를 이 世上은 임의 잘 아는 世上이고 後 世上은 아직 모르는 世上이니 아는 이 世上만 相關한다 하는 이가 있습니다.”<sup>16)</sup>라고 개탄했을 정도로 내세의 실재와 천상생활에 대한 열망이 지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지상생애에서 그리스도인이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을 경시하지 않았다. 그는 지상에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事業으로써 우리의 職分을 삼고 終身도록 行할 것”<sup>17)</sup>이라고 피력하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과업들을 총체적으로 성역으로 인식했다. 그는 이 신념에 입각하여 “우리가 이 世上에서 사는 거슨 이다음 永遠히 살 만흔 큰 目的(내세의 삶-연구자 주이올시다.”<sup>18)</sup>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영생을 소망해야 하는 지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다양한 분복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느님께서 아모 뜻업시 이 膳物(지상에서 누릴 분복-연구자 주)을 주셨을까요?”<sup>19)</sup>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15) Henry G. Appenzeller, “人生的 目的,” 梁翊煥 譯, 『百牧講演(第一集)』, 59.

16) 위의 글, 59-60.

17) 위의 글, 63.

18) 위의 글, 60.

19) 위의 글, 58.

아펜젤러는 설교문 “人生的 目的” 전반(全般)에 걸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회노애락의 삶은 그 누구나 순례자로서 거쳐야 할 필연적인 역정(歷程)이며 장차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선행적 전조(前兆) 단계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 설교문을 통해 지상생애에 부과된 그리스도인의 중차대한 다섯 가지 과업들로서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지상생애에 충실할 것)’,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 실천’, ‘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하나님의 역사 간구’, ‘전도와 구령사역’ 등을 제시했다. 이는 그가 그만큼 지상생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이다. 아래 인용문은 이 다섯 가지 과업의 각 표제에 상응할 만한 문구들을 발췌한 것이며 원문에 기술된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이 과업들 중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사랑) 실천’, ‘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등은 본 논문 제2장 1절부터 3절까지 소주제들로 설정하여 고찰했다.

1. “하나님의 뜻을 行ᄃᆞ는 者는 곳 只今 行ᄃᆞ는 者; 이 世上에서 사는 동안에 行ᄃᆞ는 者”[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지상생애에 충실할 것]
2. “다른 사람을 爲ᄃᆞ야 목숨을 버리면 이지 못ᄃᆞ는 世上에 드러가기를 始作ᄃᆞ는 거시라 (중략) 하나님을 스랑ᄃᆞ야 목숨을 버리는 거시 곳 찾는 거시라”[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 실천]
3.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든 거시 惡ᄃᆞ는 거시니 이것을 예수 께서 미워ᄃᆞ섯고”[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4. “自己의 힘만 쓰고 하나님의 힘과 도모심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往往히 失敗를 當ᄃᆞ는 거시올시다”[하나님의 역사 간구]
5. “基督敎는 自己만 救援함으로 滿足ᄃᆞ지 안코 다른 사람을 救援ᄃᆞ는 디 있습니다.”[전도와 구령사역]<sup>20)</sup>

아펜젤러는 이 다섯 가지 과업들을 논증한 후에 설교 본문 요한서 2장

20) 위의 글, 59-61, 63-65, 68.

17절에 기록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라는 문구를 심사숙고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과업들을 힘써 실천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비록 몸은 이 지상에 있어도 천상의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도 혹은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今日 본 聖經 말씀(요한1서 2:17-연구자 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者는 곳 只今 行하는 者라 흔 말씀이 아니오니가? 쯔는 何處어느 곳-연구자 주에서 行할 거시냐 하면 이 世上에서 사는 동안에 行하는 者라 하는 뜻이 아니오니가. 本人은 이리케 解釋합니다. 하나님을 愛하는 者라 하는 人은 이 世上에서 라도 더 天堂에 잇는 無限한 기쁨을 얻을 수 잇다 흠이니 곳 我等(우리들)이 이 世上을 天堂으로 만들 수 잇고 地獄으로도 만들 수 잇다고 生覺합니다. 하나님쨌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중략) 이 世上의 길을 漸漸 더 붉은 대로 빛초이게(밝게) 비추게-연구자 주 ㅎ라고 우리를 불냈습니다.<sup>21)</sup>

아펜젤러는 다른 설교문 “하나님의 나라”(생애 후기 설교)에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왕국에 대해 “성령 안에 공의와 평화와 기쁨의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항성이 지탱하는 한 평화가 넘칠 것이며 그 지배권은 역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sup>22)</sup>라고 찬미했다. 그는 이 고백에 이어 이 지상을 조명하면서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이 지상에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연구자 주를 위해 우리는 노력한다.”<sup>23)</sup>라고 다짐함으

21) 위의 글, 68.

22) Henry G. Appenzeller, 『질그릇 속의 보물: 헨리 G. 아펜젤러의 설교』(대전: 培材大學校出版部, 1995), 258. 설교제목: “하나님의 나라”

로써 내세를 소망하면서 지상에서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독려했다. 그가 1885년 4월에 내한한 이래 배재학당(1885) 설립, 성경번역위원회 조직(1887)과 성경번역, 정동교회 설립(1895), 삼문출판사 전신 인쇄소 설립(1889), 월보 『교회』 창간(1889), *The Korean Repository* 간행(1892), 대동서시(1894) 설립, 『美以美教會綱例』(1890)와 『廟祝問答』(1895) 등 교육서 출판, 『대한크리스도인회보』 사장(1898) 봉직 등 선교사역과 사회참여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이라는 신앙적 소신이 뚜렷했기에 관철할 수 있었던 고귀한 업적들이었다.

## 2.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에 투사된 ‘사랑’

아펜젤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수직적 윤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평적 윤리 양자를 한 지평에 구축했으며 그 근본정신을 ‘사랑’이라는 용어에 투사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라고 교훈하셨다. 아펜젤러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교훈한 성경구절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다. 아펜젤러의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의 진가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는 “예수씨서 ㅎ신 말씀을 生覺 흡시다. 『誰 던지[누구든지-연구자 주] 自己의 生命을 앗기는 사람은 일허브릴 거시오 生命을 앗기지 아니ㅎ는 者는 永生 ㅎ도록 保護 ㅎ리라 ㅎ섯습니다.』 이 말씀이 무슴 뜻이오니가?”<sup>24)</sup>라는 고뇌에 찬 수사적

23) 위의 글.

질문을 던진 후에 이는 공연히 귀한 생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며 “이 뜻은 이 世上에서 다른 사물을 爲호야 목숨을 버리면 아지 못호는 世上내 세-연구자 주에 드러가기를 始作호는 거시라 호는 뜻이올시다. 하느님을 사랑호야 목숨을 버리는 거시 곳 찾는 거시라 호신 말씀을 生覺호여야 참으로 사는 거시올시다.”<sup>25)</sup>라고 고백했다. 이처럼 아펜젤러는 영생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바른 윤리관을 정립하려면 수직적 대신관계와 수평적 대인관계에서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순교신앙을 지향했다.

아펜젤러는 인생의 최후를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에 투사된 ‘사랑’으로 마감했다. 그는 1902년 6월에 목포에서 개최될 성경번역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제물포항에서 소형 구마가와마루호(熊川丸號) 편으로 항해하던 중 6월 11일 군산항 앞 바다에서 대형 기소가와마루호(木倉川丸號) 상선과 충돌하여 조난을 당했다.<sup>26)</sup> 그는 위급한 상황에서 동행하던 조사(助事) 조한규 장로와 함께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려고 서둘러 아래 층 선실에 진입했지만 안타깝게도 세 사람 모두 생명을 잃었다.<sup>27)</sup>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한 학자도 있으나<sup>28)</sup> 본 연

24) Henry G. Appenzeller, “人生的 目的,” 59-60.

25) 위의 글, 60.

26) George H. Jones, “The Korea Mission 1903-1905,” Committe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 (I)*, 105.

27) 존스(George H. Jones)는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라는 글에 당시 구마가와마루호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아펜젤러의 최종 행적을 기록했다. 아펜젤러는 성경번역위원회 회합 차 목포로 항해하던 중이었으며 인천항에서부터 어린 한국소녀 한 사람을 맡고 있었다.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펜젤러는 침몰 당시 그 소녀를 구하려고 급히 2등 선실 승강구로 향하고 있었다. George H. Jones,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Henry G. Appenzeller, 『自由와 빛을 주소서』, 263-264.

28) 이 사안과 관련하여 홍승표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 *Korea Review* 혹은 그리피스

구자는 종래의 입장(George H. Jones)을 견지한다. 아펜젤러는 1885년 27세에 내한하여 1902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한국인을 사랑했으며 그의 마지막 헌신은 한국 학생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버린 사랑이었다. 아펜젤러는 이 조난사건에서 대신관계로서의 수직적 윤리를 대인관계로서의 수평적 윤리로 전이하여 지고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가 한국 땅에서 사랑을 실천한 또 하나의 자취로서, 배재학당의 당훈(堂訓)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가 당훈으로 정했던 ‘육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 문장은 예수님의 고결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함축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셨고 친히 대속물이 되시어 사랑을 실천하셨다(마 20:28). ‘육위대자 당위인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6절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기록된 말씀이며, 아펜젤러는 조한규 장로와 상의하여 이 구절을 배재학당 당훈으로 정했다.<sup>29)</sup> 지금도 배재대학교에서는 건학이념으로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sup>30)</sup>라는 이 가르침을 교훈으로 채택하여 전수하고 있다.

### 3. 절제와 금욕의 삶 추구

아펜젤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와 금욕에 솔선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믿음으로 이타정신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러운 죄와

(W. E. Griffis)가 작성한 아펜젤러의 전기 등에 의해 전승된 미화작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일본 언론 측에서 보도한 자료들과 이후에 발표된 일본 측의 민사소송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아펜젤러의 조난사건을 재조명했다. 홍승표, “아펜젤러 조난사건의 진상과 의미,”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09), 5-41.

29) 盧宗海, “아펜젤러의 人間과 信仰,” 286.

30) “배재대학교 건학이념,” <https://www.pcu.ac.kr/kor/contents/80>. 2022년 12월 1일 접속.

악한 생각을 품을 여유조차 없다고 했다.<sup>31)</sup> 그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으며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선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들에 잇는 禽獸의 模樣으로 살나면 살 수는 잇습니다. 하느님의 神이 充滿호 此 世上을 黑暗호 模樣이 되고는 神靈호 사람이 산다 할 수 업습니다.”<sup>32)</sup>라고 호소하여 그리스도인이 금수의 삶을 살 수는 없으며 만일 이러한 부패한 삶을 추구한다면 필경 암흑 세상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요한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잇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신 것은 세상에 속한 악이었으며, 그리스도인 역시 이 악을 증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저하게 증오해야 할 대상을 대변적인 한 단어로 농축하여 ‘악’이라고 단정했다.

『此 世上과 그 가운데 잇는 거슬 미워하라』 호신 말씀이 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此 世上에 잇는 飛禽走獸와 昆虫魚鱉을 미워하라 호신 말씀이오니가? 그러면 우리와 갓치 잇는 사람을 미워하라 호신 말씀이오니가? 決코 아니 올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거슬 스랑호섯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든 거세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연구자 주 惡호 거시니 이것을 예수께서 미워호섯고 쏘 우리도 神靈호 눈으로 보면 惡호 거신 줄 알고 미워호겠다 하신 말씀이 올시다. (중략) 하느님의 뜻대로 行호다 흠이 곳 우리의게 許諾을 주실 만호 열쇠와 갓호 거시올시다. 그러나 或 이것이 무어시며 엇더케 알 수 잇느냐? 무르시리이다.<sup>33)</sup>

아펜젤러는 이 논증을 심도 있게 전개하는 대목에서 “이것 보시요! 날

31) Henry G. Appenzeller, “人生의 目的,” 63.

32) 위의 글, 61, 63.

33) 위의 글, 61-62.

마다 祈禱로써 上帝의하나님께-연구자 주 무르실 것 窺하면 次次 조금씩 나타내보이시리라. 또 聖神의셔 當身의 心을 感動식히샤 올치 이거슨 我가 홀 거시다 亨는 生覺을 주십니다. 또는 吾儕의 良心의 소리를 強히게 亨야 ㄹ라쳐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普通 ㄹ라치시는 理致올시다.”<sup>34)</sup>라고 장담하여 인간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 성령의 감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신령한 분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아펜젤러는 이 “人生的 目的”에서 신성한 삶의 모범을 보여준 최상의 사표로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과 행적을 제시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심성 내면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정언적 모토로서 “예수 基督과 ㄹ치 되려고”<sup>35)</sup>라는 매우 정련된 문구를 구사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이마고테이(imago Dei)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감으로써 거룩한 인간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변한 대목이다. 그는 다른 설교문 “Predestination”(1884)에서는 이마고테이 추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6)</sup> 참고로, 웨슬리는 이마고테이를 자연적인 형상(불멸의 속성, 지력과 정서, 자유의지), 정치적인 형상(통치 및 지배능력), 도덕적인 형상(거룩한 속성, 순결과 의로움) 등으로 설명했다.<sup>37)</sup> 벌코프(Louis Berkhof)는 개혁주의 견해로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된 ‘의로움’, ‘진리(참 지식)’, ‘거룩’을 이마고테이로 소개했다.<sup>38)</sup> 칼빈(John Calvin)은 이 구절에서의 ‘거룩’은 수직적 대신관계에,

34) 위의 글, 62.

35) 위의 글, 64.

36) Henry G. Appenzeller, “Predestination,” Committe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1), 145.

37) 송홍국, 『웨슬레 神學』(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9), 69.

38) Louis Berkhof, 박수준 역, 『基督教敎理要約』(서울: 소망사, 1991), 87.

‘의로움’은 수평적 대인관계에 상응하는 형상이라고 보았다.<sup>39)</sup> 아펜젤러의 이마고데이에 관한 이해 역시 이들의 논지와 상통한다. 그는 이마고데이 논증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해감으로써 부정부패한 세속의 풍조를 일소하고, 악을 미워하며, 진리의 말씀과 내면의 선한 양심으로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마고데이는 인간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존재로 단정하지 않고 늘 변천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은 목적지점을 향하여 꾸준히 되어가는 존재(human becoming)로 규정된다.<sup>40)</sup> 아펜젤러는 설교문 “Contending for the Faith”(믿음의 경주, 1888)에서 거룩한 전투란 신성한 믿음이자 영적인 투쟁이라 했고,<sup>41)</sup> “The Christian Soldier”(그리스도인 군사, 1884)에서는 신자들은 세력이 막강한 원수대적들과 끊임없이 정전을 감행해야 할 전장의 군사들이라고 했다.<sup>42)</sup>

39)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191. 에베소서 4:24 주석.

40) 안택윤, “포스트휴먼 시대에서의 인간성과 기술의 관계 변화와 기독교 사회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포스트휴머니즘 사상들의 비판과 헤프너의 “하나님의 형상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2021), 310. 재인용.

41) Henry G. Appenzeller, “Contending for the Faith,”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sup>(1)</sup>, 207, 209.

42) Henry G. Appenzeller, “The Christian Soldier,”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sup>(1)</sup>, 162.

### III. 녹스<sup>43)</sup>의 “참 敬虔함”에 나타난 윤리관

녹스는 미국남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1906년에 내한한 이래 주로 호남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추진되지 않았으며 향후 그가 남긴 유작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참 敬虔함”이라는 제하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느님 아버지 압헤서 淨潔하고 더러움이 업는 敬虔함은 곳 父母업는 兒孩와 寡婦를 患難 中에 도라보고 또 스스로 삼가 직혀지켜-연구자 주 世俗에 물드지 아니하는 거시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정하여 “참 敬虔함”을 작성했다. 이 설교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구는 ‘하느님 압헤’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논할 때 흔히 구사하는 ‘코람 데오’(coram Deo)와 일맥상통에 있다. 그는 10면 분량의 설교문 “참 敬虔함”에 ‘하느님 압헤’라는 정형화된 문구를 무려 40차례에 걸쳐 구사했다.<sup>44)</sup> 녹스는 이 코람 데오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적용했다. 첫째, 이 ‘하느님 압헤’를 하나님 편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그리스도인 편에 적용할 때는 마음 내면에 경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셋째, 역시 그리스도인 편에 적용할 때는 한층 역동적인 의미로서 경건한 마음을 외부로 발산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는 단계를 지향했다. 그리스도인 편에

43) 녹스(1888-1959)는 미국남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1906년에 내한하여 광주선교부와 목포선교부에서 사역했다. 신사참배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귀국했다가 1948년에 다시 내한했다. 전남노회장(1919)에 봉직했고, 함평 월봉리교회·무안 성암리교회·화순 화순읍교회·함평 수호리교회 등지에 시무했으며, 보성 문양리교회·무안 성남리교회·광양 학동교회·화순 원리교회·화순 학천리교회·광양 원당리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해방 후 광주고등성경학교, 이일성경학교에서 근무했고 1952년에 귀국했다. 基督教大百科事典編纂委員會 編, 『基督教大百科事典(3)』 (서울: 基督教文社, 1994), 654.

44) Robert Knox, “참 敬虔함,”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82-90.

적용된 둘째와 셋째 관점은 일종의 ‘내연(內燃)-외연(外延)’의 구도와 정반합의 논리를 구형한 모양새를 취한다.

### 1. ‘하느님 압헤(앞에)’의 적용: 감찰하시는 하나님

눅스는 서두에서 “참 敬虔함은 理致뿐 아니오 禮拜堂에 단니는 것도 아니오 洗禮받는 것도 아니오 職分 엮는 것도 아니오 오직 心中에 된 거시을 시다.”라고 선언하여 경건의 구심점은 내면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건성의 진원지가 심중이라고 본 것은 인격의 좌소를 마음으로 보는 심정설(心情說)의 견해와 일치한다. 철학사전 정의에 따르면 ‘심정’이란 직관적이고 오로지 한 목적으로 신과 연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처소에 해당된다.<sup>45)</sup> 벌코프는 종교의 좌소(seat)는 마음(Kardia)이며 이는 감정만을 지향하지 않고 인격적·도덕적 생활의 초점을 가리킨다고 이해했다.<sup>46)</sup>

눅스는 ‘하느님 압헤’라는 문구를 단지 그리스도인 측의 경건성을 속고 한 용어로만 제한하지 않고 그 범주를 확장하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안을 열어주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조명할 때 구사되는 용어이며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 측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라는 상향적 일방성의 의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령, ‘여호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라는 의미로 구사하는 경우에도 역시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쪽을 조명한 표현이다.<sup>47)</sup> 눅스에 의하면 하나님 편에서의 ‘하느님 압헤’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향적 감독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두드러진

45) 世界哲學大事典編輯委員會 編, 『世界哲學大事典』(서울: 教育出版公社, 1987), 673.

46) Louis Berkhof, 고영민 역, 『벨코프 조직신학: 서론』(서울: 基督教文社, 1985), 180-181.

47) cf. 양희욱,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과주: 21세기북스, 2007), 34.

다. 그는 참 경건은 교회 앞에서도, 목사 앞에서도, 장로 앞에서도, 타종교 앞에서도, 공맹(孔孟) 성인 앞에서도, 다른 신 앞에서도 아니고 오직 생사 여탈을 관장하시는 생사존망(生死存亡)의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만 논할 수 있다고 했다.<sup>48)</sup> 특별히 주일성수 여부와 남을 속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 보십니다’ 혹은 ‘뵈히 보십니다’라고 기술하여 ‘하느님 압혜’의 속뜻을 ‘다’, 그리고 ‘뵈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탐색했다. 그는 하나님의 감찰 능력에 대해 인간이 비록 암실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그 분의 눈은 번개와 같다고 했으며 선악 간에 생각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했다.

吾儕[우리-연구자 주의 믿음조리가 如何한 것어떠한 것-연구자 주과 吾儕의 隱密한 生覺이 如何한 거시 다 하느님 압혜 있습니다. 玄帝垂訓에 『暗室欺心이라도 神目は 如電[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음-연구자 주이니라』 한 말 숨이 잊지 안습니까? 吾儕의 生覺이 惡한던지 善한던지 如何한던지 다 하느님 압혜 있습니다. 吾儕 心中에 怨望한는 生覺이나 미워한는 生覺이나 시기한는 生覺이나 淫行한는 生覺 있으면 (중략) 다 하느님 압혜 있습니다.<sup>49)</sup>

當身の 行實이 엇더한지 아십니까? 當身の 行實은 하느님 압혜 있습니까? 當身은 하느님 압혜 있습니까? 主日을 아니 직했습니까? 하느님 압혜서 아니 직한 거시오 主日을 직히던지 아니 직히던지 하느님씩셔 다 보십니다. 남을 속였습니까? 하느님씩셔 뵈히 보십니다. 그 속이는 일이 엇더한던지 하느님 압혜 어느 때던지 있습니다.<sup>50)</sup>

녹스는 ‘하느님 압혜’를 하나님 편에서 감찰의 의미로 적용할 때 하나님

48) Robert Knox, “참 敬虔함,” 82.

49) 위의 글, 83-84.

50) 위의 글, 85-86.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언행심사를 광범위하게 예시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왕의 위치 혹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그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시고 주권적으로 반응하신다고 했다. 녹스가 지적하는 언행심사는 예배당 운집, 이동하거나 머무는 장소, 노동, 대화 혹은 묵상, 마음, 은밀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 시기, 음행, 언사, 거짓말, 자긍하는 말, 헛된 말, 악한 말, 착한 말, 교회에서의 허락, 음란한 말, 분노,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 주일성수, 속임, 불신자와의 결혼, 우상숭배, 제사, 구제, 연보(헌금), 전도, 사랑, 속이는 일, 세속에 물드는 현상, 시험, 정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일들을 망라한다.<sup>51)</sup> 그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인간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소사의 모든 현상들을 총괄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밀하게 감찰하시며,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추호라도 자신의 언행심사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 2. ‘하느님 압혜’의 적용: 경건한 마음을 갖출 것

녹스는 ‘하느님 압혜’를 하나님 편에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 편에 적용할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갖춘다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 측에 적용되는 ‘하느님 압혜’는 전적으로 상향적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리킨다. 그는 참 경건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 면으로 나누어 생각했으며 양자 간의 관계는 소극적인 면이 충족될 때 진일보 적극적인 면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소극적인 면에서 참 경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일대 일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것, 마음을

51) 위의 글, 83-89.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가다듬고 반성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은 이후 개혁이라는 적극적인 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先行) 단계에 위치한다.

참 敬虔함은 늘 하나님 압해 잇는 줄 씨다라 아닌(깨달아 아는) 연구자 주 거시올시다. 우리는 恒常 하나님 압해 잇습니다. (중략) 누구던지 늘 하나님 압해 잇는 줄 알면 참 敬虔한 心을 엿습니다. 품儻는 恒常 하나님 압해 잇는대 첫지는 품儻의 心이 한(한) 하나님(하나님) 연구자 주 압해 잇습니다. (중략) 此 世上은 하나님 압해 惡한 世上이니 世上에 물들지 안는다 함은 다른 거시 아니라 惡한 世代를 본받지 안는 거시올시다. 『오직 變(변)하야 새 只(只)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善(선)하시고 깃버(깃버)하시고 온전(온전)하신 뜻을 分別(분별)하는 거시요』(로마+二〇二)<sup>52)</sup>

둘째, 경건의 적극적인 면은 소극적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혁'하는 단계이다. 녹스는 매사 자신의 심사를 지키고 성찰하여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세속과 영합한 마음을 청산하여 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소극적 단계에서의 깨달아 아는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내면을 철저하게 쇠신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새로운 실존으로 고양되고 향상되는 모습을 가리킨다.

萬若 품儻의 마음이 하나님 압해 잇는 줄 알면 품儻의 心思를 宜當히 직히고 畧(畧)히 보며(지키고 살펴) 보며(연구자 주) 操(操)心(心)하야 하나님 압해 合(合)當 안은 生(生)覺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生(生)覺만 둘 거시요 누구던지 그와 同(同)치 하나님 압해서 自己의 心思를 畧(畧)히 보고 操(操)心(心)하면 敬(敬)虔(虔)한 사람이 될 거시올시다. (중략) 누구던지 그런 줄 알고 모든 말슴을 직히고 하나님 압해서 不(不)合當

52) 위의 글, 83-88.

흔 言行은 버리고 하느님을 깃브게 흘 말만 흐면 敬虔흔 只음을 엇습니다.  
모든 惡흔 行實 다 버리고 自己의 行實을 畚혀보고살펴보고-연구자 主 操心  
흐면 敬虔흔 只음을 엇을 거시오시다. (중략) 世俗에 물들지 안는 거슨 곳 世上  
에 不흔불은, 밀착한-연구자 主 只음을 버리는 거시오.<sup>53)</sup>

녹스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단계를 거쳐야 자신의 경건한 내면을 자신 밖으로 표출하여 삶속에서 비로소 경건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은 다음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이 논증은 ‘내연-외연’의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내연-외연’의 도식이란 “비록 겉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마음 내면에 배태되어 있는 불가시적인 요체이지만 이는 안에서 힘차게 불타오르는 고도의 내연에 해당되며 향후 삶 속에 분출되어 외연해갈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求心點)을 구축한다.”<sup>54)</sup>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 논리는 역사학자 민경배 교수가 역사신학 관점에서 구체화한 도식이다.<sup>55)</sup> 녹스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단계를 병립하여 논증했으며 이 논지에 근거하여 ‘하느님 압혜’를 삶속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단계로 고양시켰다. 이 논증을 헤겔(Georg W. F. Hegel)의 정반합 논리에 대응한다면 소극적인 면은 ‘정’에, 적극적인 면은 ‘반’에, 다음 3절에서 다룰 ‘선행을 실천할 것’은 ‘합’에 상응한다. 헤겔은 인간 존재의 발전을 논할 때 이 정반합의 논리를 단초로 삼아 특수한 대상으로 자신을 외화(外化)시키고, 이 대상을 부정하고 지양시키며, 이를 통해 다시 한층 고양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고 논증했다.<sup>56)</sup>

53) 위의 글, 84-88.

54) 안수강,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 (2020), 168.

55) 閔庚培, 『歷史와 信仰』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8), 82.

56) 김근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92), 84.

### 3. ‘하느님 압혜’의 적용: 선행을 실천할 것

녹스는 ‘하느님 압혜’를 삶속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사표로서 야곱의 아들 요셉과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을 소개했다. 요셉에 대해서는 “애급에서 종노릇할 때에 上典 집에서 그 上典의 안희(아내-연구자) 주가 淫行으로 큰 試驗을 할지라도 그 惡훈 일을 도모지 아니 하였습니다.”<sup>57)</sup>라고 진술하여 신앙양심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경건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바벨논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心中에 作定하기를 王의 飯饌과 그 마시는 술을 먹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 하였습니다.”<sup>58)</sup>라고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새긴 마음(心)과 이를 준행한 행위(行)에 주목했다. 청교도 신학자 헨리(Matthew Henry)는 요셉의 행위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덕성과 정절을 지켰다는 데 방점을 두었고,<sup>59)</sup> 다니엘에 대해서는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아닌, 율법에 성문화된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신앙의 단심을 지켰다고 주석했다.<sup>60)</sup>

녹스는 특별히 한국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실천할 구체적인 사안들로 구제와 연보(헌금)를 제시했다. 이는 당시 험벗고 굶주리는 비참한 시대상을 반영하여 경건을 대변할 만한 가장 시의성 있는 실천사안들로 구제와 연보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녹스는 진실과 사랑을 담은 구제를 가리켜 경건을 실천하는 선행이라고 했다. 그는 설교본문 야고보서 1장 27절을 되새겨 불우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볼 것을 권고했으며 이를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실천하

57) Robert Knox, “참 敬虔함,” 89.

58) 위의 글, 90.

59)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Genesis to Deuteronomy*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222. 창 39:13-18 주석.

60)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Isaiah to Malachi*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1020. 단 1:8-16 주석.

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실과 사랑을 담지 않은 구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내연(마음)이 참될 때 외연(행위) 또한 참되다는 논리이다. 그는 본장 제1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에서 설명했듯이 인격의 좌소를 마음으로 보았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행위는 제아무리 선한 행위라고 자처할지라도 이는 외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참 敬虔은 다른 거시 아니라 하나님 압해서 父母 업는 兒孩와 寡婦를 患難中에서 도라보는 거시올시다. 不祥흔 兒孩와 寡婦를 도라보면 外貌로 된 것도 아니오 남의게 보이랴고 흔 것도 아니오 自己의 榮光을 엇으랴고 흔 것도 아니오 다만 스랑흔는 只음으로 行할 거시올시다. (중략) 오직 眞實흠과 스랑흔는 只음으로써 行여야 하나님 압해 참 敬虔흔 일이 됩니다. (중략) 그 兒孩를 스랑흔고 어려운 것을 민망히 녀이는 只음으로 行지 아니흐엿스면 이는 하나님 압해서 敬虔흔 일이 되지 못헿겟습니다.<sup>61)</sup>

둘째, 녹스는 구제를 위한 연보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 또한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선행의 한 방편이라고 했다. 그는 연보행위에도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라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했으며 불우한 이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에 치우쳐 연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 또한 경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복음전파를 통한 구령사역 역시 영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지 教會에서 捐補할 旣에 眞實하고 스랑흔는 只음으로 하나님 압해서 行는 줄 알고 行지 아니흐면 참 敬虔흠이 될 수가 업습니다. 假令 傳道會支局을 爲하야 捐補할 旣에 그 外人을 生覺하지 아니하고 스랑하지 아니하고

61) Robert Knox, “참 敬虔흠,” 86-87.

救援 엇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捐補 암만아무리 연구자 주 홀지라도 하느님  
압헤 敬虔 候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들의 不祥 候 形便을 生覺 候고 福音傳  
播 候으로 救援을 엇기를 願 候면 이는 참 敬虔 候이올시다.<sup>62)</sup>

이처럼 녹스는 ‘하느님 압헤’의 의미를 일방성이 아닌 양방성으로 이해하여 하나님과 인간 양 측이 상호 교섭하는 양태로 적용했다. 그는 ‘하느님 압헤’ 즉 코람데오를 하나님 편에 적용할 때는 감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인간 편에 적용할 때는 마음 내면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실천적인 면으로 나누어 경건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논증에는 ‘내연-외연’의 원리와 정반합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코람데오의 개념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향적 일방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는 양자 사이를 양방성으로 조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과 면밀하게 교섭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논점을 제시해주었다.

### III. 게일<sup>63)</sup>의 “聖經”에 나타난 윤리관

삼일독립운동 당시 일제의 살상진압을 경험한 게일(James S. Gale)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비판한 선교사였다. 그는 “일

62) 위의 글, 87.

63) 게일(1863-1937)은 미국북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1888년 내한했다. 문서선교를 위해 『辭課指南』(1893)과 번연(John Bunyan)의 『天路歷程』(1895)을 번역했고 『韓英大字典』(1897), 『과도기의 한국』(1909), 1924년 『한국의 역사』 등을 편찬했다. 1900년부터 연동교회에서 목회했고 이후 예수교중학교와 연동여학교를 설립했다. 한국YMCA 초대회장직(1903)을 비롯하여 독노회장(1910), 성서공회 성서개역위원, 예수교서회 부회장으로 봉직했고 찬송가 개편위원, 평양신학교 교수로 사역했다. 1928년 은퇴까지 연동교회, 평양신학교, 피어선성경신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cf. 유영식 편, 『착한 목사 게일의 삶과 선교』(서울: 진흥, 2013), 862-870; 基督教大百科事典編纂委員會編, 『基督教大百科事典(1)』(서울: 基督教文社, 1994), 506-507; 김승태, 박혜진, 『대한선교사총람(1884-1983)』(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25, 67.

분: 피에 굶주린 아모크”라는 자서(自書)를 통하여 살인적인 광기로 군장(軍裝)한 아모크(amock)가 날뛰, 광란의 살인현장과 다를 바 없었다고 분개했다.<sup>64)</sup> 게일은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난 당월에 영국의 브라이스(Viscount Bryce, 주미대사 역임)에게 보낸 서신에서 “일본정부는 조선인을 동화시켜서 일본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인은 일본의 신민이 될지언정, 절대로 일본화 되지는 않습니다. 조선인의 문명, 이상과 종교, 그리고 언어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sup>65)</sup>라고 고난당하는 한국인의 심정으로 걱정을 토로했다.

게일에 관한 연구는 신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국문학자들도 한국 고전문학 번역과 탐구, 한국역사 등 문학과 역사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신학 영역에 관련된 연구는 단지 몇 편 정도에 불과하고 윤리관에 관한 연구는 추진되지 않았다. 신학분야의 논문으로는 민경배의 “게일의 宣敎와 神學: 그의 韓國精神史에의 合流”, 황재범의 “한국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신학의 문제—게일 선교사의 경우—”, 안교성의 “게일 목사의 신학사상의 특성과 그 유산-선교사, 혹은 한국학자, 아니면 둘 다?—” 등이 있으며 비정치화신학 문제, 신학사상의 특성 등을 주요 주제들로 다루었다.<sup>66)</sup> 게일은 『百牧講演(第一集)』에 발표한 『聖經』에서 성경영감에 관하여 모두 일곱 가지로 논증했다. 제1논증부터 4논증까지는 ‘피조세계

64) James S. Gale, “일본: 피에 굶주린 아모크,” 유영식 편, 『착훈 목사 게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221.

65) James S. Gale, “브라이스 경(卿)에게 보낸 편지,” 유영식 편, 『착훈 목사 게일의 삶과 선교2』, 208.

66) 閔庚培, “게일의 宣敎와 神學: 그의 韓國精神史에의 合流,” 『현대와 신학』 24 (1999), 149-172; 황재범, “한국개신교 초기 선교사들의 비정치화신학의 문제—게일 선교사의 경우—,” 『宗敎研究』 59 (2010), 71-98; 안교성, “게일 목사의 신학사상의 특성과 그 유산-선교사, 혹은 한국학자, 아니면 둘 다?,” 『韓國敎會史學會誌』 34 (2013), 219-251.

의 조화’, ‘유일하신 삼위일체’, ‘인간의 죄성 성찰’, ‘성경의 통일성’ 등을 다루었고 제5논증부터 제7논증까지는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 ‘신구약 예언의 일관성과 응험(應驗)’, ‘예수님 기적과 장래사’ 등을 전개했다. 이 논증들 중 윤리영역에 해당되는 주요 논지들은 제3논증 ‘인간의 죄성 성찰’과 제5논증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에 나타난다. 그는 “聖經”이라는 제하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모든 聖經은 하나님의 默示하신 바니”)을 본문으로 설정하여 설교문을 작성했다.

### 1. 인간의 죄성 진단

게일의 성경논증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무려 1500년 동안에 걸쳐 40여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創世記로부터 默示까지 一邇인간 구원-연구자 주로 貫通함”<sup>67)</sup>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성경기록자들 중에는 신분상으로 귀한 자들과 천한 자들이 혼재했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저술되었기에 착란(錯亂), 섞여 혼란스러움이 없으며 지정지밀(至精至密, 지극히 정밀함)하다고 했다.<sup>68)</sup>

게일은 이 성경무오성 논증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선명하게 짚어내었다.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신묘한 이치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로 전락했는데 무슨 수로 부패한 인간이 무흠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각국의 저명한 고서나 신화 등에 대해 이렇게 증거한다. “此 世代 中 各國 最古史冊들의 神話를 考호건디 밋기 어려운 말이 非一非再나 我等의

67) James S. Gale, “聖經,”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208.

68) 위의 글, 208-209.

愛讀호는 此 聖經은 (중략) 聖潔 無瑕티가 없음-연구자 究호고 眞實無妄호 證據가 있습니다.”<sup>69)</sup> 그의 이 논증에 따르면 각국의 고서나 신화 등은 타락한 속성을 가진 인간의 이성적 산물이며 이들이 남긴 저작이나 사상은 하나님의 영감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확무오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게일의 지론이다.<sup>70)</sup> 그는 아담 시조가 범죄한 이래 타락한 인간상을 가리켜 강도 높은 표현들을 동원하여 ‘오물 아래 빠져 높은 지위를 상실한 자’요, 심지어는 ‘피조물들 중 최악의 동물로 전락한 자’라고 탄식했다.<sup>71)</sup> 그는, 다른 설교문 “야소의 세계관”(1925)에서는, 인간은 일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속하여 저주받은 존재인 것으로 간주한다.<sup>72)</sup>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하여 12지파의 조상 야곱도 세속을 거부하지 못했고, 선한 치적을 남긴 다윗도 사악한 죄를 범했으며,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인정받았던 솔로몬 역시 세속의 욕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게일이 아담의 행위위약 파기와 범죄상을 집중 조명하기보다는 후대의 족장과 왕들의 타락상에 역점을 두어 지목했던 것은 인간이라면 비단 시조뿐 아니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此 聖經이 人類의 性質과 資格의 如何를 明細히 模寫호는 大義에 曰 人類는 萬物 中 가장 貴重호는 者로되 汚穢 下에 沉淪호야 其 높호는 地位를 일허버렸슴으로 受造物 中에 最惡호는 動物이 되엿습니다. 假令 善人이란 名稱을 듯호는 者라도

69) 위의 글, 205.

70) 위의 글, 208.

71) 위의 글, 207.

72) James S. Gale, “야소의 세계관,” 유영식 편, 『착호는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426.

如何ᄃᆞᆫ 罪惡과 如何ᄃᆞᆫ 心事가 ——이 나타나서 야곱도 世俗에 屬ᄃᆞᆫ은 免치 못  
 ᄃᆞᆫ었고 다윗도 不淨ᄃᆞᆫ 行爲가 綻露ᄃᆞᆫ 자요 솔로몬도 世情을 滿懷ᄃᆞᆫ 者에 지나  
 지 못ᄃᆞᆫ였스니 此 世上 人類 中에 沉淪에 들지 아니ᄃᆞᆫ 者 누구오. 然則[그렇다  
 면-연구자 주] 此 聖經은 肉情에 屬ᄃᆞᆫ 世人의 思想으로는 到底히 著作ᄃᆞᆫ 것이  
 안닌 줄 判明ᄃᆞᆫ 것이올시다.<sup>73)</sup>

그러나 유의할 점으로서, 게일이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진단하여 오물  
 아래 빠진 자이자 최악의 동물이라고 묘사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들이 이마고테이를 일호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심성에는 여전히 이마고테이가 남아 있으며 이성적으로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선천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라고 했다. 선교사들 중 한국  
 고전문학에 가장 조예가 깊었던 게일은 하늘을 열망한 한국인들이 지은  
 시 구절들을 음미하여 설교문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한국인들의 생각-연  
 구자 주]”(1928년 이후의 설교)을 작성했다.<sup>74)</sup> 또 다른 설교문 “天  
 國”(1921)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중국인들 역시 천부적으로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심정을 가졌다고 했다.<sup>75)</sup> 이 논점은 칼빈(John Calvin)이 설파  
 했듯이 인류는 예외 없이 모두가 선형적이며 선천적인 종교심(혹은 ‘the  
 seed of religion’)을 갖는다고 논증한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시조가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파기하여 원죄를 자초한 죄인으로 전락했지만  
 그 이후에도 결코 이마고테이가 백지화되었던 것은 아니며 자취(흔적)로  
 나마 잔존한다고 주장했다.<sup>76)</sup> 시조가 타락했지만 인간에게 여전히 이마

73) James S. Gale, “聖經,” 207-208.

74) James S. Gale,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유영식 편, 『착ᄃᆞᆫ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475.

75) James S. Gale, “天國,” 유영식 편, 『착ᄃᆞᆫ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435.

7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sup>(1)</sup>, trans. Ford L. Battles

고데이가 진존한다는 근거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9장과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9장 6절에 모세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라고 진술했고,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야고보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기술했다. 칼빈은 야고보서 3장 9절 주석에서 “그것[인간이 갖는 하나님의 형상]연구자 주이 비참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형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논증하여 이마고데이의 자취를 피력했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짐승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했다.<sup>77)</sup> 그런데 주목할 것은, 게일이 인간의 타락상을 심도 있게 논증한 것은 단지 인간의 부패상을 고발하려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게일이 부패한 인간상을 적나라하게 부각시켰던 것은 이를 통해 파멸의 길에 들어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조명하기 위함이었다. 위의 인용문에 기술된 ‘汚穢下에 沉淪호야 其 높흔 地位를 일허버렸슴’과 ‘最惡흔 動物’이라는 통렬한 문구는 그 심각성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마고데이 회복을 각성하게 해주는 역설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 2. 이마고데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 추구

앞 절에서 살펴본 인간의 죄성과 이마고데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은

---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I, 12(270-271면). 이마고데이는 이성, 학문, 문화, 국가를 비롯해 신적 감각과 종교성에서 인간존엄성의 단초가 된다. 송용원, “칼뱅의 선물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211.

77)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and The Epistles of James and Jude*,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291-292. 약 3:9 주석.

한 지평 위에서 각기 대척점의 위치에 병치되어 있다. 게일은 인간의 타락상을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汚穢 下에 沉淪 訶야 其 汚穢 地位를 일혀버렸슴과 ‘最惡 訶 動物’ 등으로 묘사했다. 이 문구들은 타락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이마고테이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과제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그는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을 다음과 같이 두 전형에서 탐색하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정수를 제시했다.

첫째, 게일은 초자연적 도덕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적에서 탐색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초자연적 도덕성을 가지신 사표(師表)로 보았다. 설교문 “聖經”을 통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신성한 가르침을 교훈하시고 교행 일치(教行一致: 가르침과 행함의 일치)에 힘쓰신 숭고한 보적들을 반주(反芻)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적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종해야 할 초자연적 도덕성이라고 했다. 그가 논증한 자연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도덕성은 공생애에 임하신 이후 고난과 부활이 성취되기 직전까지 수행하신 모든 교훈과 행적을 포괄한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산상기도의 귀감, 마음을 비울 것과 의를 위해 땀방울 받을 것을 가르치신 산상보훈, 원수를 사랑하고 어린 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신자가 될 것을 권고하신 성훈(聖訓)을 되새겼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도덕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할 것을 권하는 대목에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教會를 愛 訶 訶”, 그리고 “그리스도는 教會를 爲 訶 訶 身을 버리셨느니라”라고 기술하여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지고의 사랑을 음미했다.

聖經은 人類의[인류에게 제시한-연구자 주] 超自然的 道德이니 예수-登山祈禱[산상기도-연구자 주]에 謙遜 訶 者-福 잇스리라 訶 訶 心者[심령이 가난

한 자-연구자 주가 天國을 얻으리라 ㅎ심과 逼迫 ㅁ는 자가 福 잇스리라 ㅎ심과 對敵을 愛ㅎ라 하심과 兒孩 ㅁ흔 者라야 天國에 ㄷ러가리라 ㅎ신 ㅁ이며 (중략) ㅁ를 順服ㅎㅁ치 婦된 者는 其 夫의게 服從ㅎ며 너희 男子는 妻子 스랑 ㅎ기를 그리스도가 教會를 愛ㅎ듯 ㅎ라. 그리스도는 教會를 爲ㅎ야 身을 버리 셧느니라.<sup>78)</sup>

게일은 다른 설교문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태도”(1925)에서 무흠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일생을 가리켜 비유하건데 길이 복잡한 정원(庭園)과 암혹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마치 ‘나침반과도 같은 생애였다고 칭송했다.<sup>79)</sup>

둘째, 게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전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 초자연적 도덕성을 탐색했다. 그는 이 두 서신을 통해 거짓 없는 참 사랑, 상호 존경심, 고난 중 인내심, 상호 돕고 동락하는 삶, 빈궁한 자 구제, 정부 관리들에게 순종할 일, 부부지간의 도의, 부모공경, 자녀양육, 상전과 하인의 바른 관계 정립 등 도덕성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성경이 교훈한 이러한 초자연적 도덕성은 그 자체로서 ‘絶對的 盡善盡美[최고의 선, 최고의 아름다움-연구자 주]’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로마十二〇九-十九) 大略에 거긔이 업는 ㅁ로 ㅁ을 ㅁ히 녀이며 ㅁ을 미워ㅎ며 相愛ㅎ기를 兄弟ㅁ치 ㅎ며 彼此 尊敬ㅎ고 成實을 힘쓰며 (중략) 患亂에 ㅁ으며 祈禱를 恒常 ㅎ고 聖徒를 供給ㅎ며 遠客을 善待ㅎ고 樂者를 對ㅎ거든 同樂ㅎ며 哭者를 對ㅎ거든 ㅎ의 哭ㅎ고 (중략) 衆人으로 和ㅁㅎ고 怨讎가 飢渴ㅎ거든 飲食을 주고 惡에게 지지 말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ㅎ였고(베드로

78) James S. Gale, “聖經,” 209-210.

79) James S. Gale,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태도,”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2)』, 446.

전서二〇十三, 四) (중략) 너희 子女는 凡事에 父母를 順從하라. 主의 喜悅하시  
는 巴요 父母된 者는 子女의 怒氣를 激發하지 말고 奴僕된 者는 凡事에 主人을  
服從하되 (중략) 聖經은 果然 絶對的 盡善盡美한 言인 줄 알 것이올시다.<sup>80)</sup>

이처럼 게일은 이마고데이의 정형(整形)과 사범(師範)의 진면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에서 탐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힘써야 할 성화의 본분을 설파했다. 이 교훈과 관련하여 칭의교리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점이 있다. 칭의교리는 일체 행위구원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개혁주의신학의 요체(要諦)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의 정언대로 ‘은혜에 의한’(by grace), 그리고 ‘믿음을 통한’(through faith) 칭의(justification)를 강조한다. 그러나 반드시 주지해야 할 점으로서, 진정한 솔라 피데(sola fide)의 신앙고백은 일체 자기중심적인 삶을 청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화의 영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1)</sup> 이러한 관점에서 일평생 도덕성을 회복하는 과업은 오늘날 한국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 실천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百牧講演(第一集)』(1921)에 나타난 아펜젤러, 녹스, 게일 등의 기독교윤리관을 분석했다. 이들의 설교는 일체가 문화정치라는 정략적 채널을 통해 식민사관을 이식할 무렵 한국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80) James S. Gale, “聖經,” 209-211.

81) 한상화, “이중칭의에 관한 소고: 마르틴 부씨의 칭의론과 윤리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28 (2020), 435.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선도한 값진 가르침을 담았다.

아펜젤러는 “人生의 目的”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내세를 한 지평에서 통합하여 일원적 세계로 바라보아야 하며 지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겨 현재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교훈했다. 또한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여 순교를 감수할 정도로 고도의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를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와 금욕에 솔선하여 성화를 실천할 것을 가르쳤으며 정도(正道)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식, 성령의 감화, 양심의 소리를 통해 분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녹스는 “참 敬虔 癖”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느님 압해’(코람 데오)의 신앙을 지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 문구를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도 적용했다. 하나님 편에서의 ‘하느님 압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언행심사를 감찰하시는 감독자의 모습이 부각되며, 인간 편에서는 경건한 신전의식이 두드러진다. 그는, 참 경건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심사를 성찰하고 삶을 개혁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전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시급한 윤리적 과업으로 진실과 사랑을 담은 구제, 구제를 위한 연보행위를 제안했다.

케일은 “聖經”에서 인간의 죄성을 진단하여 ‘오물 아래 빠져 높은 지위를 상실한 자’요 ‘피조물들 중 최악의 동물로 전락한 자’라고 고백했다. 그는 인간의 타락상을 심층 기술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에 주목했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이마고데이의 회복을 각성하게 해주었다. 그는 타락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로 예수 그

리스도의 초자연적 도덕성과 바울베드로 서신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그는 예수님의 산상기도와 산상보훈을 비롯하여 서신에서 권면한 거짓 없는 참 사랑, 상호 존경심, 고난 중 인내심, 상호 동고동락하는 삶, 빈궁한 자 구제, 정부 관리들에게 순종할 일, 부부지간의 도의, 부모공경, 자녀양육, 상전과 하인의 바른 관계 정립 등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현하 한국기독교의 도덕성을 성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지도자들뿐 아니라 신자들까지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어 줄곧 비판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태에 대해 교회사학자 주도홍은 “한국기독교의 현재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에 상응한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을 요청하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교회는 무엇을 바르게 믿어야 할까(what to believe)를 강조하며 강단 메시지의 대부분을 바른 신앙에 할애했다.”<sup>82)</sup>라고 진단한 후 “한국기독교는 이제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how to live)를 묻는 성숙을 향한 시대적 요청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sup>83)</sup>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펜젤러, 녹스, 게일의 윤리관을 통해 본 연구자는 한국그리스도인들이 솔선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펜젤러가 강조했듯이 물질주의를 벗어나 ‘절제와 금욕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을 추구해야 한다. 현 세대는 4차산업에 진입하여 맘몬이즘을 동반한 황금만능주의와 과학주의에 경도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을 기계화하거나 기계를 인간화하는 유물관으로 치닫고 있다.<sup>84)</sup>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세속문화에 쉽게 편승하는 행

82) 주도홍, 『새로 쓴 世界敎會史』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671.

83) 위의 책, 672.

84) cf. 최윤식, 『메타구도의 시대』 (파주: 넥서스BIZ, 2021), 368-369.

태를 보여준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절제와 금욕의 삶을 실천해야 하며 물질 세계에 침륜한 현대인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야를 열어주어야 한다.

둘째, 녹스가 설파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 ‘경건한 신자상’을 추구해야 한다. 코람데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최우선으로 각성하는 의식이며 고결한 신전의식을 지향한다.<sup>85)</sup> 현 시대는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지형의 신자들, 은둔형 신자들이 점증하는 추세이다. 녹스의 호소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감찰을 시인하고 심성 내면에 신전의식을 각인해야 한다. 나아가 신행일치와 지행일치의 경건한 신자상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연-외연’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회공동체에 기독교윤리를 확산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 스스로 부패상을 척결하기 위한 ‘개혁운동’에 출선해야 한다. 게일이 표방했듯이 개혁의 절대적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잣대는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이다. 조용훈이 우려하듯 현하 한국교회는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 위의 동네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도덕성이 붕괴되어 사회적 신뢰를 잃었으며 심지어 교회가 사회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조차 허다하다.<sup>86)</sup> 주지할 것은, 인간은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에 흔적으로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탁상 이론의 신학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성결, 성화, 경건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기독교윤리를 확장해야 할 중차대한 과업을 짊어지고 있다.

85) 이종숙, “기독교상담을 위한 슈퍼비전의 코람데오 자세,” 『목회와 상담』 32 (2019), 213.

86) 조용훈, 『사회이슈와 한국교회』 (성남: 북코리아, 2014), 253.

## 참고문헌

- 기독교대백사사전編纂委員會 編. 『기독교대백사사전(1)』. 서울: 基督教文社, 1994.
- \_\_\_\_\_. 『기독교대백사사전(3)』. 서울: 基督教文社, 1994.
- 김군진. 『헤겔과 마르트』.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92.
- 김승태, 박혜진. 『대한선교사총람(1884-1983)』.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盧宗海. “아펜젤러의 人間과 信仰.” Henry G. Appenzeller. 盧宗海 譯. 『自由와 빛을 주소서』.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9, 282-288.
- 閔庚培. 『歷史와 信仰』.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1998.
- \_\_\_\_\_.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延世大學校出版部, 2000.
- 世界哲學大事典編輯委員會 編. 『世界哲學大事典』. 서울: 教育出版公社, 1987.
- 송용원. “칼뱅의 선물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5 (2020), 209-237.
- 송흥국. 『웨슬레 神學』.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9.
- 안수강. “이기풍(李基豐)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 (2020), 147-178.
- \_\_\_\_\_. “이범진(李汎鎭)의 금전윤리관과 현재적 함의-그의 ‘人生의 金錢觀’(1921)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2021), 269-304.
- \_\_\_\_\_. “일제 문화정치 초기 『백목강연(百牧講演) 第一集』(1921)에 나타난 기독교윤리관 분석-홍병선, 김형식, 이범진, 조종범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4 (2022), 203-237.
- \_\_\_\_\_. “정경옥(鄭景玉)의 실용주의(實用主義) 신학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3 (2019), 153-187.
- 안택윤. “포스트휴먼 시대에서의 인간성과 기술의 관계 변화와 기독교 사회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포스트휴머니즘 사상들의 비판과 헤프너의 “하나님의 형상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 (2021), 305-336.
- 梁翊煥 撰.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 양희옥.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 과주: 21세기북스, 2007.

-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개일의 삶과 선교(1)』. 서울: 진흥, 2013.
- 이장형.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정립』. 성남: 북코리아, 2016.
- 이종숙. “기독교상담을 위한 슈퍼비전의 코람데오 자세.” 『목회와 상담』 32 (2019), 203-228.
- 조용훈. 『사회이슈와 한국교회』. 성남: 북코리아, 2014.
- 주도홍. 『새로 쓴 世界教會史』.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10.
- 최윤식. 『메타구도의 시대』. 파주: 넥서스BIZ, 2021.
- 한경국. “한국 최초의 설교집 백목강연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 (2017), 145-173.
- \_\_\_\_\_. “한국 최초의 절기 설교집 종교계 저명사 강연집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1 (2018), 147-174.
- 한상화. “이중칭의에 관한 소고: 마르틴 부씨의 칭의론과 윤리를 중심으로.” 『생명 과말씀』 28 (2020), 395-441.
- 韓錫源 編. 『宗教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 홍승표. “아펜젤러 조난사건의 진상과 의미.” 『한국기독교와 역사』 31 (2009), 5-41.
- “배재대학교 건학이념.” <https://www.pcu.ac.kr/kor/contents/80>. 2022년 12월 1일 접속.
- Appenzeller, Henry G. “人生的 目的.”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54-69.
- \_\_\_\_\_. 『질그릇 속의 보물: 헨리 G. 아펜젤러의 설교』. 대전: 培材大學校出版部, 1995.
- \_\_\_\_\_. “Contending for the Faith.”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sup>(1)</sup>.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206-215.
- \_\_\_\_\_. 조성환 역. 『H. G. 아펜젤러의 報告書』. 대전: 培材大學校出版部, 1997.
- \_\_\_\_\_. “Predestination.” Committ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sup>(1)</sup>.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143-147.
- \_\_\_\_\_. “The Christian Soldier.”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sup>(1)</sup>.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162-167.

\_\_\_\_\_. “The Treasure in Earthen Vessels.” Committ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1).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239-244.

Berkhof, Louis. 박수준 역. 『기독교교리요약』. 서울: 소망사, 1991.

Louis Berkhof. 고영민 역. 『빨쵸 조직신학: 서론』. 서울: 기독교문사, 1985.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and The Epistles of James and Jude*,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Gale, James S. “브라이스 경(卿)에게 보낸 편지.”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208-215.

\_\_\_\_\_. “聖經.”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205-214.

\_\_\_\_\_.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태도.”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446.

\_\_\_\_\_. “야소의 세계관.”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426-427.

\_\_\_\_\_. “일본: 피에 굶주린 아모크.”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219-226.

\_\_\_\_\_. “天國.”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435.

\_\_\_\_\_.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유영식 편. 『착한 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2)』. 서울: 진흥, 2013, 475.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Genesis to Deuteronomy*.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_\_\_\_\_. *Matthew Henry's Commentary: Isaiah to Malachi*.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n.d.

Jones, George H.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Appenzeller, Henry G. 盧宗海 역. 『自由와 빛을 주소서』.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9, 259-267.

\_\_\_\_\_. “The Korea Mission 1903-1905.” Committe of Appenzeller Project, *The Appenzellers: How They Preached and Guided Korea into Modernization (1)*. Daejeon: Pai Chai University Press, 2010, 105-113.

Knox, Robert “참 敬虔함.” 梁翊煥 編.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82-91.

논문투고일: 2022년 09월 23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5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일제가 문화정치에 돌입한 초기 1921년에 출판된 『百牧講演(第一集)』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윤리를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는 이 강연집에 기술된, 기독교윤리와 관련하여 선교사들이 논증한 핵심적인 담론들을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첫째, 헨리. G. 아펜젤러의 설교문 “人生的 目的”에서는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노력, 사랑으로서의 수직적 윤리와 수평적 윤리, 절제와 금욕 등을 주요주제로 설정하여 기독교윤리관을 다루었다. 둘째, 로버트 녹스의 설교문 “참 敬虔함”에서는 하나님의 철저하신 감찰,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마음과 자세, 그리스도인의 선행 실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코람테오(‘하느님 압헤’)의 관점들을 고찰했다. 셋째, 제임스 S. 게일의 설교문 “聖經”에서는 인간의 죄성 진단, 이마고테이로서의 초자연적 도덕성 등을 주요주제로 설정하여 기독교 윤리관을 살폈다.

**주제어:** 헨리. G. 아펜젤러, 로버트 녹스, 제임스 S. 게일, 『百牧講演(第一集)』, 기독교윤리

---